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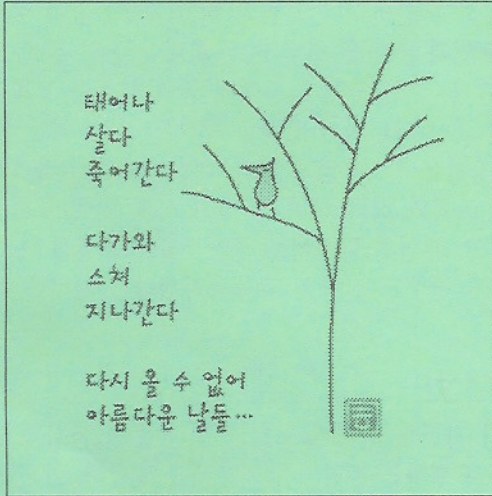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0주일 (목주기도 성월)
제28권 48호(가해) 2008.10.26

[묵상]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란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온 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일까?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째도 첫째와 같단다.
이것은 좀 쉬운 것 같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되니까.
이런 이웃사랑이 곧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다.
자신을 적게 사랑하면
이웃도 하느님도 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모자라
사랑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주어진 ‘하루’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자.
나를, 이웃을, 하느님을 ... (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장기 기증자들, 엄은섭 도로테오
	(생)김정심 크리스티나, 김풍길 바오로, 김재연 다두, 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 미사	(연)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은완 야고보, 이영자 마리아, 김진수 미카엘, 이원길, 박순용 요안나, 김홍기, 최애정 안나, 이정기 클레멘스, 김홍배 루카 이상현 베드로, 한병열 토마스
	(생)이종민 요셉, 이영희 카타리나, 이윤조 글라라, 김경원 니디아, 이노우에 코타, 김영연 가누도, 강순복 요세피나 가정, 이복례 마르타, 한금순 수산나 가정, 최광정 비오 신부, 박상대 마르코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22,20-26

화답송 ○하느님 내 힘이시여, 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지없이 사랑하나이다, 하느님 내 힘이시여.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성채,
내 구원자시오니.○
○내 주여, 이 몸 숨겨주시는 바위여.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여.
찬미하올 주님을 나는 부르면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되오리다.○
○야훼께 만세, 만세, 내 바위를 찬양하라.
날 구하신 하느님을 높이높이 찬양하라.○
○당신은 임금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기름부는 다윗에게 자비를 내리셨나이다.○

제 2독서 데살로니카 1서(Thessalonians) 1,5-10

복음 ○알렐루야.
환호성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22,34-40

영성체송 우리는 주님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83	323
봉헌	352	197,257
성체	361	297,299
파견	431	181

19. 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 혼인에 관한 교회의 규정들

교회는 혼인의 본질적 목적과 특성을 바탕으로, 혼인 당사자들과 새로 꾸며지는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법을 정하여 놓았다.(교회법 1055조~1165조) 가톨릭 신자 간의 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로 거행되어야 한다. 가톨릭 신자가 교회의 혼인 예식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관면) 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조당)에 놓이게 된다. 혼인 장애의 상태에 놓인 이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등, 지속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신자와 혼인하려는 신자는 사전에 교회의 허락(관면)을 받고 사제 앞에서 관면 혼배를 해야 하고, 혼인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태어날 자녀에게 천주교 신앙을 교육시키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 혼인장애(조당)

혼인조당이란 가톨릭 신자가 교회가 정한 혼인 예식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혼인의 장애상태를 말한다. 이는 윤리적인 죄가 되지는 않지만 교회법을 어긴 죄에 해당한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혼인에 관한 교회의 규정을 모르거나 알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혼인조당 문제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혼인조당을 풀어 성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톨릭 혼인이 배우자 사이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에서 이혼이 발생한다. 성사로 성립된 혼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으므로, 이혼을 한 경우, 첫 번째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재혼도 합법화 될 수 없다.

혼인조당 문제는 그 사안과 개별 당사자가 처한 경우에 따라 그 해법이 다양하므로 몇 가지 해답으로 풀어 갈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혼인장애, 또는 조당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본당신부와 면담하여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 관면혼인

가톨릭의 혼인은 성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앙인 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이루어지려면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을 관면혼인이라 한다. 관면혼인을 받은 비신자가 혼인 후에 세례를 받게 되면 옛적 혼인은 즉시 성사의 품위로 올려지고 혼인성사의 은총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인 배우자는 되도록 비신자 배우자가 혼인 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혼인한 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세례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계속 - CBCK + 박상대 신부 제공)

가장 크고 첫째가는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 제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또는 ‘최고’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부님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어떤 때는 한식이 좋지만, 어떤 때는 중식이, 어떤 때는 일식이, 어떤 때는 양식이 좋기도 합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인데, 딱히 특정 음식을 집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합니다.

본당에서 사목하시는 모 신부님은 몇몇 신자에게 자신이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을 솔직히 말했다가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반 모임에 갈 때마다 자신의 수저 앞에는 늘 그 음식이 올라와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또는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질문은 즉각적으로 응해서는 안 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가장’이나 ‘최고’라는 단정적 표현을 떼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가장’이나 ‘최고’가 될 수 있기에, 본의 아니게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질문을 받습니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표현대로, 그는 예수님의 답변에 시비를 걸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의 계명들이 613가지에 이르렀고, 바리새자들에게도 어떤 계명들이 보다 중요한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저 없이 답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저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의 강렬함을 느낍니다. 율법 교사는 시비를 걸려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가장 크고’에 덧붙여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은 당시 율법의 613가지 계명에는 들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로 꼽으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도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 교사의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빗대어, 시비 거리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당시의 수많은 계명은 모두 제쳐 놓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훨씬 중요하고 큰 계명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예수님의 표현은 사랑이 모든 계명과 가르침의 근본임을 극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은 사랑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자 정체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그리고 ‘최상의’ 계명으로 꼽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들 자신의 삶에서도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최상의’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반성해 봅시다.

◆김영춘 베드로 신부<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김정은 썸마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마오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1월 ◆ 모든 성인 대축일(All Saints) 미사 : 1일 (토) 오전 8시30분

- ◆ 병자영성체 : 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 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동구역
- ◆ 서머타임 해제(Daylight Saving Time Ends) : 시계 바늘을 2일(주일) 새벽 2시에서 1시로 돌려놓으십시오.

-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10월25일(토) 유아세례를 받은 서유리 줄리에타와 황유진 이레네가 하느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 요셉회/안나회 가을 온천관광
- 때,곳 : 10월28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오전 8시까지 성당 주차장에 모여 관광버스로 출발합니다.
- 준비물 : 따뜻한 겉옷, 슬리퍼, 큰다월, 수영복
- 물적 후원자(성모회, 빈첸시오회, 송경옥 율리아나, 권순길 체칠리아, 김금자 테레사)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성모회 가자미 식혜 담그기 강습회
- 일 시 : 11월1일(토) 오전 9시30분(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후)
- 장소 : 주방앞 천교장
- 완성된 가자미 식혜는 성모회 기금마련을 위해 판매합니다. 성모회원들은 물론 일반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최림 피아노 리사이틀
- 주일아침미사 반주자 최림 안젤라 자매의 USC 석사학위 마지 막 독주회가 열립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11월3일(월) 오후 7시30분

- ◆ St. Margaret Mary School 신입생 모집
- 백삼위 성당이 속한 성 마가렛 매리 본당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스쿨에서 2009 학년도 신입생(K-8)을모집합니다.
- 학부모 초청 오픈하우스 : 2009년 1월25일(주일) 오전 8시~오후 1시. * 킨더가르텐(K) 어린이는 2009년 12월 1일로 만 5세가 되어야 합니다. ☎(310)326-9494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 불우이웃 돕기 캔푸드(Can Food) 수집
- 주일학교에서 11월 한달동안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캔푸드(통조림)를 모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집장소 : 성당입구에 수거함 비치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780-0369
- ◆ 한국학교에서 한영사전 기증 받습니다.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영사전이 있으면 교재로 필요하오니 보내주십시오. 이헬레나 교장 ☎(310)347-8765

- 장소 : USC Newman Recital Hall(Figueroa St. at USC Mearthy Way, Gate #3) * 문의 ☎(310)514-1700

- ◆ 양업회 주최 족구시합
- 일 시 : 11월9일(주일) 오후 1시30분, 천교장
- 간단한 복장 및 운동복. 각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연중시기 마무리 신앙 특강
- 11월12일(수) 오후 8시 : "나의 신앙 무엇이 문제인가?"
- 11월13일(목) 오후 8시 : "성사생활의 의미"
- 강사 : 나원균 바오로 몬시뇰/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 주임

- ◆ 디지털 카메라 사진 앙코르 강의
- 일시 : 11월16일(주일) 오후 1시, 유아실
- 대상 : 디지털 카메라에 흥미가 있으나 자세한 작동법을 모르는 초보자는 물론, 사진을 좀 더 잘 찍기를 원하는 교우들. ☎(949)502-1213 이안드레아 홍보부장

- ◆ 2009년(기축년/나해) 본당 달력 광고 주문 받습니다.
- 새해 백삼위 성당 달력에 나갈 광고를 주문 받습니다. 지면이 한정되어있으니 서두르십시오.

- ◆ 성당 주차장에서 접촉사고시 연락처를 남깁시다.
- 지난 주일(10월19일) 11시 미사후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린 차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26일(주일) : 토런스 남1반 (소고기국밥 \$3)
- 11월2일(주일) : 소공동체 (김밥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강태홍	권진열	금영도	김관기	김병학
	김상억	김선영	김정엽	김정웅	김찬구	김현숙
	민경근	박광자	박주현	방세훈	변복순	서희준
	신순철	엄지선	오수인	오진자	유근태	육근주
	윤선희	이병찬	이재정	이현주	장영우	정인식
	채양석	최상만	최진수	최현찬	홍석인	황인중
	황지영				합계 :	\$3,195

미사헌금 : \$2,991

성전헌금	강인모	강태홍	권진열	금영도	김관기	김병학
	김선영	김정엽	김찬구	김현숙	민경근	박광자
	박주현	방세훈	변복순	서희준	신순철	오수인
	오진자	육근주	이병찬	이재정	이현주	장영우
	채양석	최상만	최진수	최현찬	홍석인	황인중
	황지영					
					합계 :	\$2,825

감사헌금 : 권순길

◆ 혼인 공시 ◆

♡ 혼배 예정자 : 김민석 시몬 & 박지혜 수산나

- 부모님 성함 : 김충묵 벨라도 & 박금실 루치아
박인건 바오로 & 박정미 글라라

● 일시 : 2008년 11월15일(토) 오후 3시30분

● 장소 : 백삼위 한인 성당

* 위의 사람이 혼인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주임신부님께 알려주십시오.

◆ 빈첸시오 회에서 신발(운동화 등)을 모읍니다.

- 보내는 곳 :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는 까리파스 수녀원
- 보내는 물품 : 작아서 사용하지 않는 신발(운동화 등)을
깨끗이 손질해 가져다주세요.
* 성당입구에 수거함을 비치해놓았습니다.
- 문의 : 빈첸시오 ☎(310)283-5879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장애인 후원 '일일점심과 차'

- 일 시 : 11월1일(토)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 메뉴 : 갈비+추어탕과 맛있는 반찬, 1인당 \$10
- 장 소 :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 ☎(213)387-3301
(1137 Arapaho St. LA, CA 90006)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발현 성지 순례

- 출발 : 매월 셋째주 목~일(3박4일)
- 경비 : \$950(LA 출발 기준. 항공료에 따라 변동가능)
- 후원 : 가톨릭신문사, 주관 : 투어월드 ☎(213)385-0043

◆ 제 27회 남가주 한인천주교회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 일 시 : 11월27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30분
- 장소 : Eldorado East Regional Park
(Garden Grove Area)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주제 :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 미사 후 행사 : 가장행렬, 줄다리기 등 각 본당 참여
- 준비위원회 : 성엘리사벳 한인천주교회 ☎(949)725-9348

이번 주 단체 모임

10월 정기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수산나 (949)679-4321 10/17(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전레 스텔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42 10/10(금) 오후 8시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테레사 618-8499 10/1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현정 헬레나 543-4593 10/7(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최경숙 수산나 320-0855 10/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김파센시아 892-9651 10/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10/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10/10(금) 오후 7시, 성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최기남 야고보 569-3940 10/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755-489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종두 요한 544-1267 10/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0/11(토) 오후 6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0/10(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이수산나 265-0495 10/16(목) 오전 10시, 성당

◎ 대선에 임하는 가톨릭 신자의 자세 ◎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 유세의 열기 속에 수많은 말들이 오고간다.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단순화시켜 공약을 내세우고, 또 서로 비판을 하며, 심지어는 상투적인 인신공격이 언론매체를 통해 난무하는 가운데, 때로는 진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유세자들은 나라를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누가 옳고, 누구를 뽑아야할 지 혼동이 오기도 한다. 심지어는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하여 선거기피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속출한다. 그러나 가톨릭 전통은 책임 있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덕목에 속하며,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임을 가르친다. 요즘 흔히 받는 질문은 “지금이나 4년 전, 또는 8년 전에 비해 나아졌나, 아니면 나빠졌나?” 하는 것인데, 그 대답도 갖가지일 수밖에 없다. 가톨릭교회는 어느 정당이나 후보를 추천하거나 인준하지 않으며, 교회 내에서는 어떤 정치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과 더불어 육화강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일치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훼손될 수 없는 인격 때문에 가톨릭의 사회참여 기본 원칙은 인간의 총체적 계발을 도모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자들과 사회를 변용시키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인지능력을 발휘하여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선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의 목소리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양심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계발되어야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00당에 속하고, 항상 그 쪽에 표를 던졌기에 무조건 그 당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식은 비합리적이고, 이념이건 정책이건 어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늠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11월 대선에 있어 모든 문제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질 수는 없다. 가톨릭 신자에게도 어느 한 가지 문제만으로 투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존엄한 인간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말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령,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과학적 진보의 산물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결실을 위해 인간 생명을 결코 희생시킬 수 없다. 교회는 배아줄기세포 대신 성인 줄기세포 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적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가톨릭교회의 사회에 대한 가르침은 다음 몇 가지 원칙을 둔다. ① 모든 이와 각자에게 전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② 모든 재화의 보편적 사용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 곧 하느님께서 누구도 제외하거나 선호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에게 세상을 주셨다.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평가는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이다. ③ 보조의 원칙이다. 모든 우월한 사회는 열등한 사회를 도와줄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④ 사람은 모든 결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⑤ 개인, 지역, 개별 국가의 소극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선에 투신해야 할 도덕적 덕목으로서의 연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⑥ 진리, 자유, 정의 등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가치를 신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회윤리의 최상이며 보편적인 가능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나 정당의 공약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교회의 정신과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강자의 혜택보다는 약자의 필요가 우선이라는 것이며, 소수의 요구보다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 입각하여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시급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우리 가운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 국가가 기본적인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폭력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곧, 인권을 낙태, 안락사, 태아줄기세포연구 및 조작, 사형, 전쟁으로 몰고 가는 행위. • 신정적 제도로서의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원칙을 보호하고 올바른 가정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 국경을 보호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며, 불법 이주를 초대하는 원초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총체적인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 가정과 어린이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각종 편견, 이주자들에 대한 적개심, 종교적 차별주의 및 다른 어떤 양식의 차별을 반영하는 정책에 적극 반대하여야 한다. • 가난을 극복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종교 단체와 문화를 존중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 군사력 사용의 도덕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평화를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종교자유를 신장하고 경제적 정의를 발전시키는데 세상과 협력해야 한다. -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사회에 대한 가르침과 이 나라의 고귀한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 이덕효 바오로 신부 / 북미주한인사목사제협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 워싱턴대교구 주님공헌성당 주임